

# 장백산천지

2022년 7월 6일 까지 해외 대기원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수:

## 3억 9857만 명

2022년 7월 8일 제 437기 금요일

## 호주 시드니 공무원들, 파룬따파에 감사 표해



▲ 6월 18일, 모금 행사에 참가한 파룬궁수련자들

[밍후이왕]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수련자들이 노스라이드 예술학교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뉴사우스웨일스 암 협회 모금 행사에 초대됐다.

참가자들은 수련자들이 연공을 시연할 때 강력한 에너지를 느꼈고 연공 음악이 매우 아름답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과 지역 시민들이 수련자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많은 사람이 연공을 배우기 위해 무료 수업에 등록했다.

6월 18일, 뉴사우스웨일스주 암 협회가 개최한 모금 행사에 참가한 파룬궁수련자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

### ● 공동체를 돕는 생활 방식

뉴사우스웨일스주 훈즈비 샤이어 의회 의원이자 치안 판사 스리니 필라마리(Sreeni Pillamarri)는 파룬따파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 10년간 수련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회에 대한 파룬궁의 공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자들의 가부좌 연공과 평온한 모습이 주

민들에게 도움을 주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자들이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해왔다고 감사 표했다.

“진선인(真·善·忍) 원칙은 우리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행사에 참여해 연공 시연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또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가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 서로에 대한 배려



▲ 미셸 번 전 시장

힐스 샤이어 전 시장인 미셸 번 박사가 파룬따파 부스에 들렀다. 그녀는 자비로운 에너지 마당에 감동했고, 파룬따파가 지역사회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쁜 사회에서,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서로를 보살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보고 또 타인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 ● 공산당 독재 체제 반대



▲ 버논 로페스는 종이 연꽃 접기를 배우는 딸을 보고 즐거워하다.

버논 로페스는 딸이 참을성 있게 종이 연꽃 접기를 배우는 모습을 보고 행복을 느꼈다. 그는 이런 평화로운 모습과 중국의 잔혹한 박해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고,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중공 독재정권과의 싸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더 많이 개최해 달라며 수련자들을 격려했다.

버논 로페스는 종이 연꽃 접기를 배우는 아이들을 보고 행복을 느꼈다. 샘은 종이 연꽃 접기를 배우는 딸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는 파룬궁 박해 중단 요구 탄원서에 서명했다. 딸과 함께 온 아노카 람퍼사드는 진선인 원칙에 공감했고 중공의 파룬궁 박해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랐다.

# 장춘 삼입방송 진상으로 마음의 등을 점화하다



▲ 서양화 : 방송삼입 용사들.

2002년 3월 5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3·05' 사건이 발생했다. 즉 장춘 케이블 TV 방송에 파룬궁(法輪功) 진상 프로그램을 삼입하여 방송했는데 방송 시간이 50여 분에 달했다. 파룬궁 박해의 진상이 밝혀지자 사악의 수괴 강택민은 수치심에 분한 나머지 머리끝까지 화를 냈고, 중남해에서 '살무사(殺無赦 - 용서는 없으니 죽여라)'라는 밀령을 하달했다...

[밍후이왕]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한 곡조의 슬프고 애절한 노래로 수련자의 영웅적 비장함을 간절히 말하네.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한 편 한 편의 서사시, 수련자의 자비와 강인함을 이야기하고 있네...” (‘촛불’ 가사 발췌)

## ● 목격자가 “살무사(殺無赦)” 내막을 폭로하다

“3월 13일 저녁 7시경, 단위로 돌아가 2층을 지날 때, 심문하는 소리와 욕하며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뚫고 열고 들여다보니 몇 명의 대원이 고문을 가하고 있었어요. 류하이보(劉海波)는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호랑이 의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머리가 무릎 꿇은 자세에서 걸린 채, 두 명의 대원이 고압 전기봉으로 힘껏 항문 속에 전기충격을 가하고 있었는데, 옆에는 부러진 각목 몇 개가 놓여 있더라고요.” 이 장면은 휘제푸(霍介夫)의 머리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나중에 저는 쑨(孫)이 2층에서 ‘다른 방은 때리지 마! 이 방은 죽었어.’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류하이보가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봤는데,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원래 장춘시 공안국 관청(寬城) 지국 난광창(南廣場) 파출소 경장 휘제푸가 고문 박해로 죽어가는 류하이보를 목격한 장면이다. 류하이보가 고문당하는 것을 휘제푸가 직접 목격하기 일주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3·05' 사건이 발생했다. 즉 2002년 3월 5일, 장춘 케이블 TV 방송에 파룬궁(法輪功) 진상 프로그램을 삼입하여 방송했는데 방송 시간이 50여 분에 달했다.

파룬궁 박해의 진상이 밝혀지자 사악의 수괴 강택민(江澤民)은 수치심에 분한 나머지 머리끝까지 화를 냈고, 중남해(中南海)에서 ‘살무

사’라는 밀령을 하달했다. 하달 받은 공안부 류징(劉京) 부부장은 장춘으로 달려가 기한 내에 사건을 해결했다. 현지에서는 3월 6일부터 군대, 경찰과 정부 관료들을 동원하여 5천여 명 파룬궁 수련생을 미친 듯이 납치했고, 그들을 각기 감옥, 수용소에 감금한 후 비밀리에 고문 박해했다.

그렇다면 장춘 케이블 TV 삼입 사건은 왜 사악의 수괴 강택민을 화나게 하여 ‘살무사’라는 밀령을 내리게 했을까?

## ● ‘천안문 분신자살’ 부터 말해보자

1992년, 리홍쯔(李洪志) 선생은 장춘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정식으로 전파하셨다.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신기한 효과가 있고, 도덕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탁월했기 때문에, 1998년 차오스(喬石)를 비롯한 인민대표대회 퇴직 간부들은 파룬궁에 대해 상세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파룬궁은 나라와 국민에게 백 가지 이로움이 있을 뿐 한 가지 해로움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택민은 이를 크게 거리껴했다. 그는 '6·4' 학생운동을 진압하여 정치무대에 올랐을 뿐, 덕도 없고 무능해서 대중을 설득하기가 어려웠다. 파룬궁이 민중의 지지를 받고, 수련자가 1억여 명에 달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난 그는 다른 중앙상무위원들이 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독불장군처럼 행동해 1999년 7월 20일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발동했다.

2000년까지 정치국 위원들은 파룬궁 탄압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많은 성과 시는 탄압에 관심이 없었다. 체제 내의 소극적인 저항과 사람들의 보편적 반감은 사악의 수괴가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이미 유지할 수 없게 했다. 2001년 1월 23일, 바로 설달그믐날, 갑자기 TV에서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처지는 화면이 나왔다.(3면에 계속)

(2면의 계속) 천안문 광장에서 다섯 사람이 몸에 휘발유를 붓고 자신들의 몸에 불을 붙였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는 경찰, 그리고 얼굴이 다 타버린 어린 소녀……비참하고 황당무계한 장면이 방송되자 국민의 분노는 견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이전에 본 파룬궁의 신기함과 파룬궁 수련생들이 한 좋은 일을 모두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짓말을 믿기 시작했다.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사악의 수괴 강택민 집단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가장 중요한 추동력이 됐다. 강택민의 직접 지시로 전국의 크고 작은 매체에서 비판 붐이 일어났다.

● 사람들이 거짓말에서 깨어나다

2002년 3월 5일 저녁 7시 19분, 장춘시는 경악하여 떠들썩해졌다. 장춘 케이블 TV 8개 채널에서 ‘분신자살인가 아니면 속임수인가?’,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널리 전해지다’ 등 진상 프로그램이 동시에 방송되어 수십만 명이 ‘천안문 분신 자살사건’은 뜻밖에도 ‘거짓의 불’이 있음을 꿈에서 깨어난 듯 알아차리게 되었다. 왕진동(王進東)이라는 분신 자살자는 불타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두 다리 사이에 끼워둔 휘발유를 담은 플라스틱병은 고온에서 조금도 변형되지 않았다. 또 다른 분신 자살자 류춘링(劉春玲)은 짙은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경찰로부터 치명적인 일격을 받았다. 가장 어린 분신 자살자 류쓰잉(劉思影)은 기관지 절개 수술 3일 만에 입을 열고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상식을 벗어난 작가의 시나리오는 졸렬하기 그지없으며, 허점이 각양각

색이다. ‘분신자살’은 중국공산당(중공)이 조작한 거짓말로 소식이 신속하게 전해졌다.

장춘 시민들은 놀라서 깨어나다. 이 점은 파룬궁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궁리만 하는 사악 수괴 강택민을 격분시켰다. 분노가 끓어오른 강택민은 “살무사”라는 밀령을 직접 하달했다.

● 비장한 역사와 영웅들의 장거

2002년 9월 18일, 장춘시 중급법원은 파룬궁 수련생 15명에 대해 불법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기는 다음과 같다. 저우룬천(周潤君) 20년, 류웨이밍(劉偉明) 20년, 류청진(劉成軍) 19년, 량전싱(梁振興) 19년, 장원(張聞) 18년, 레이밍(雷明) 17년……. 류청진, 레이밍, 량전싱, 허우밍카이(侯明凱) 등 8명의 파룬궁 수련생은 혹독한 고문 박해로 사망했다.

방송삼입 용사들은 사람들이 진상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일깨우기 위해, 정의를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갔으며,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2007년 아태(아시아와 태평양) 인권기금회는 올해의 ‘단심한청상(丹心汗青獎 - 단심을 청사에 길이 남긴 업적에 대한 상)’을 뉴스 봉쇄를 돌파하고 “3·05” 장춘 방송삼입팀 대표로 이미 고인이 된 장춘 파룬궁 수련생 류청진에게 수여했다. 아태인권기금회는 “류청진 이야말로 20세기 중화민족의 인권 수호자로 훌륭한 명성을 후세에 떨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류청진.

● 선악에는 응보가 있는데, 하늘은 누구를 용서하는가?

선악에 보응이 있는 것은 천리

이고, 불법(佛法)을 박해하는 것은 더욱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이다. 이것은 장춘에서 방송삼입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각급 공안·검찰원·법원 관계자의 결말이다.

장춘시 관청(寬城)구 공안지국 전 형사경찰대 대장 쉰리둥(孫立東)은 2004년 초 사무실 안에서 급사했다.

장춘시 전 기율검사서기, 정법위원회 서기 류위안준(劉元俊)은 2006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장춘시 중급법원 형사 1 재판장 장후이(張暉)는 2006년 뇌일혈(腦溢血)로 사망했다.

장춘시 전 중급법원장 쉰완성(孫萬勝)은 뇌물수수로 ‘쌍규(雙規 - 중국의 기율 당국이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것) 조사를 받았다.

장춘시 전 부시장 겸 공안국장 텐중린(田中林)은 11년 형을 선고받았다.

장춘시 중급법원 전 당 조직(黨組)서기, 원장 송리페이(宋利菲)는 심사를 받았다.

길림성 공안청 당위원회 전 부서기, 상무 부청장 류페이주(劉培柱)는 중공의 당적(黨籍)과 중국 인민 해방군의 군적이 제적됐다.

밍후이왕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월까지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19년 동안 2만 784명이 응보(불똥이 튀어 함께 재앙을 당한 친지 등 4149명 포함)를 받았고, 응보를 받고 사망한 사람은 7405명에 달했다. 공안 계통에서 악행을 저질러 응보 받은 사람은 4540명에 달했고, 재앙을 당한 그들의 친지도 9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선악에 마지막은 응보가 있어, 하늘의 도리는 윤회하니, 믿지 못하겠으면 고개를 들어보라, 하늘이 누구를 용서하는가!”



마리암

# 한 아프간 여성기자 : 인생의 끝에서 기적의 책을 만나다

“제생각엔, 여러해동안 죽음은 그림자처럼 따랐어요. 그러나 죽음의 신은 줄곧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믿었어요. 이는 사부님께서 한번 또 한번 나를 구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의 사명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진선인(真善忍)’은 진귀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예요.”

[밍후이왕] 마리암은 한 유럽 매체 회사의 아프가니스탄본부에서 기사를 담당했다. 위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다. 신체적 부상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발과 총격으로 여러 해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 거기에다 2020년 역병기간 그녀는 3개월간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다.

마리암은 가장 힘든 시기에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해 들었다. 코로나(무한폐렴)에서 기적으로 회복된 사연은 그녀에게 수련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 이야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라고 회상하며 “인생의 끝에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문을 본 것 같았어요.”라고 말했다.

## ■ 친히 공포습격을 겪고 나서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2016년 6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시위와 행진을 보도하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광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당시 프랑스 뉴스 편집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편집자는 시위에 참여한 조직의 최고위원을 인터뷰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군중속에서 나온지 10분후에 광장 군중속에서 공포적인 폭발이 발생했다. 그녀는 그 전화 한 통이 자신의 생명을 구할 줄은 몰랐다. 몸을 보호하려고 벽으로 급히 달려가는 동안 그녀에게서 멀지 않은 숨겨진 곳

에서 기관총이 시위대를 향해 사격을 시작했다. “테러리스트들이 절 쓸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 사건에서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그 비극적인 경험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계속 트라우마를 남겼다. “두 달 후 저는 심한 호흡곤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심장병과 심각한 복통이 몇 달간 계속됐어요.” 2018년 그녀는 치료를 위해 이란에 갔다. “정신과 의사는 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어서 6개월간 치료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 ■ 마음의 목소리

마리암은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녀는 “환경오염으로 지구의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글을 읽었을 때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미래와 미래 세대가 너무 걱정됐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 마음에는 항상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저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몇 년간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에 따랐습니다.”

그녀는 그 목소리를 따르고 싶었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주변 친구들이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공무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일에 집중하고 영어를 배우

라고 권했다. “하지만 그들은 요점을 놓쳤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표류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자기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슬플 때 쉽게 참을성을 잃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화를 냈지요.”

## ■ 가장 힘든 날에 희망 만나

2020년 3월, 아프가니스탄에 첫 번째 코로나 물결이 왔을 때 카불은 격리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그 당시 석사 학위 졸업논문을 준비하느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라고 말했다.

그 후 3개월 동안 그녀는 매일 기침하고 목이 따끔거렸다. 날마다 기침이 저녁까지 계속돼 그녀는 탈진했다. 한약을 포함해 여러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다. “여동생이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님과 휴가를 보내러 갔어요. 집에 혼자 있었는데 외롭고 우울했죠. 다행히 제 병은 코로나가 아니었는데 그랬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녀는 종종 소셜미디어를 검색했다. 어느 날 그녀는 중국의 파룬따파 박해에 대한 영상을 페르시아어로 보았지만 끝까지 시청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5면에 계속)

(4면의 계속) 찌찌런하오(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워서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지만 이것이 제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이렇게 몇 달간 고통스러웠지만 먹은 약 중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생각했다. '있을 것이 없으니 한번 해보자.'

그날 아침 그녀는 페르시아어로 그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재채기가 시작됐고 더는 몸이 무겁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오후에 그 구절을 외울 때 나는 다시 재채기를 시작했는데 몸도 가벼워지고 너무 편했어요." 그녀는 파룬따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파룬따파 웹사이트에서 찾은 정보로 수련생에게 연락했다. "그의 도움으로 저는 <전법륜(轉法輪)> 과 5 가지 연공음악을 다운로드 했습니다."라고 그녀가 말했다.

마리아는 <전법륜(轉法輪)>을 처음 읽었던 날 저녁에 너무 흥분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마리아는 "마음이 정화됐어요. 책의 내용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종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라고 말했다. "사실, 저는 제가 인생에서 배운 몇 가지 원리가 파룬따파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재택근무 기간에 그녀는 매일 많은 시간 <전법륜>을 읽고 연공했다. "때로는 반쯤 깨어 있을 때도 사부님(파룬따파의 창시자)께서 제 몸을 정화하고 수련에서 향상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회상했다.

#### ■ 새 생명

마리아가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시작한 직후 친구들은 그녀

의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렸다. "제 안색은 더 생생하고 젊어 보였고 얼굴이 더는 예전처럼 피곤하고 초조해 보이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모르는게 있었는데 제 극심한 슬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던 세상에서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했어요." 그녀는 회상했다.

마리아는 파룬따파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집에서 나올 때 그녀는 더는 먼지투성이의 거리와 어두운 하늘만 보지 않았다. 갑자기 거리, 나무, 상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밝아졌다. "제게 모든 것이 아름답고 활기차 보였어요. 주변 사물이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았죠."

#### ■ 사부님의 보호하에 안전하게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다

2021년 8월, 정치적 혼란 때문에 마리아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로 했다. 당시 스페인 대사관은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 그녀의 친구를 공항으로 데려오기 위해 군대를 카불 공항의 애비 게이트 (Abby Gate) 에 파견했다.

그녀는 "사람도 많았고 압력이 너무 심했어요. 스페인 대사관은 우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빨간색과 노란색 스카프와 코트를 착용할 것을 요구했어요. 스페인 군인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군중 속에서 있는 사진도 보냈죠."라고 회상했다. 마리아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전한 철수를 돕는 언론 담당자가 "군인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벽 쪽에서 있으세요."라고 조언한 것을 기억했다. "다행히 그 시간에 군중이 더 늘어나면서 우리는 중간에서 차츰 벽 구석으로 밀려갔어요.", "사람이 너무 많

아서 우리는 발을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갑자기 군중 속에서 폭발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아마 수백 명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밟고 탈출했어요. 우리는 폭발 현장에서 1m 떨어진 벽 옆으로 대피했죠. 우리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체가 하수구에 떠 있었고 수백 구의 시체가 인도를 가득 채웠어요. 죽어가는 사람들과 다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어요." 2021년 9월, 세 사람은 성공적으로 포르투갈에 도착했다. 마리아는 도와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렸다. 그 위험한 날들을 돌이켜보며 그녀는 어떻게 자신이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남았는지 신기했다.

마리아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몇 년간 줄곧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그간 사부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엔 여러해동안 죽음은 그림자처럼 따랐어요. 그러나 죽음의 신은 줄곧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부터 믿었어요, 이는 사부님께서 한번 또 한번 나를 구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의 사명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진선인(真善忍)'은 진귀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감격해 말했다.



▲ 마리아(오른쪽 첫사람)는 진상활동에 참여하다.

## 연변 박해 소식

### 최군영 (崔群英) 은 길림여자 감옥에서 박해로 뇌출혈 유발 가족의 탐시권은 박탈 당해

[밍후이왕] 길림성 연길시 조양천 파룬궁수련생 최군영은 파룬따파를 수련한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17일에 길림여자감옥에 감금됐다.

2022년 2월, 감옥측은 그의 가족에게 2000 원을 입금하라는 전화통보를 했고, 따라서 5월 24일에 또 최군영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현재 입원해 뇌경색 폐결핵 등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감옥에 들어올때부터 있었던 병인데 지금은 더욱 심해졌다고 둘러댔다. 감옥에 들어갈때면 모두 신체검사를 받는데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감옥측은 마땅히 감금을 거절해야 한다.

그기간 그의 집식구들은 줄곧 접견을 허락받지 못했고 집에서 전화를 걸어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현재 집식구들은 감옥측과 연결할 수가 없다. 예전에 친척을 통해 연결했었는데 옥경은 '보증서 (파룬따파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보증서)'를 쓰지 않으면 접견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최군영의 집식구들은 그에게 생명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주 근심하고 있다.

최군영은 올해 60세이다. 2021년 4월 3일, 그는 연길 쾌속 철로정거장에서 안전검사때 심양철로공안국 연변공안처 연길고속철로파출소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그날 최군영은 불법 가택수색을 당해 대량의 개인 물품 (돈, 핸드폰, 플레이어, 책, USB, 진상자료) 등이 강탈당하는 동시에 그도 불법형사 구류를 당했다.

2021년 4월 15일, 최군영은 연변 철로운수 경찰원에 의해 불

법체포됐다. 2021년 6월 15일, 그는 장춘 철로 운수법원에 의해 불법 입안되어 3차례나 불법 개정을 했다. 원래는 2021년 7월 21일에 장춘 철로 운수법원에서 온라인으로 최군영을 불법 개정을 했으나 시작한지 10분만에 인터넷이 끊겨 부득불 휴정됐다. 법관은 7월 30일로 개정을 미룬다고 말했다. 당시 그의 남편, 아들과 동생은 모두 방청을 거절당하고 그의 조카이자 변호사 탕요 여사만 들어가 인터넷영상으로 최군영을 볼 수 있었다.

2021년 7월 30일 오전, 장춘 철로 운수법원에서 재차 불법개정을 열었다. 최군영의 조카 탕요 여사가 그를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변호과정에서 탕요는 정정당당하게 큰소리로 무죄변호사를 읽어 장내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파룬따파수련은 무죄라는 소리를 들을수 있게 했다. 과정에서 변호사도 여러차례 발언을 제지 당했고 최후에는 강제로 결속지었다. 심판장 \_ 리따평 (李大鹏), 배심원 \_ 한연춘 (韩艳春)/ 장중레이 (张忠雷), 공소인 \_ 장춘 철로 운수경찰원 쓰샤오송 (石晓松)/ 리이통 (李奕潼) 이 참석했다. 제 3차 불법개정에서 최군영은 불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벌금 2000 원을 갈취당했다. 2021년 9월 17일, 최군영은 길림성 여자감옥에 감금되어 '포기각서'를 쓰지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측은 줄곧 가족과 접견을 못하게 했다.

현재 최군영은 박해받아 뇌경색 폐결핵등 병세가 나타났지만 그의 집식구들은 여전히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는데 오직 최군영이 파룬따파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의 집식구들은 최군영을 볼 수도 없어 그의 신체상황을 아주 근심하고 있다.

### 연변 화룡시 경찰이 여러명 파룬궁수련생 납치

[밍후이왕] 2022년 4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길림 연변 화룡시에서 4명 파룬궁수련생이 납치되고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그중 화룡시 푸(付)씨 와 린(蔭)씨 파룬궁수련생은 전염병을 피할수 있는 진상전단지를 배포한 이유로 감시카메라 추적을 당해 화룡시문화파출소 경찰에 의해 납치됐다. 현재 두사람은 불법으로 보석치료를 받았다. 팔가자 림업국 유치원 교사 손경국 (孙庆菊)은 화룡시 사회보험국에서 무리하게 정지한 퇴직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룡시 팔가자진 파출소에 불법납치되고 가택수색을 당했다 (당일 밤에 귀가). 화룡시 리제 (李杰) 여사는 신앙때문에 불법침입한 경찰에게 납치됐다.

2022년 6월 25일 11시 좌우 3명의 화룡 광명 파출소 경찰이 갑자기 리제 모친의 집으로 침입해 밥을 짓고 있는 리제를 신발도 신지못하게 한채 차에 끌고갔다. 경찰은 옆에서 말리고 있는 그의 모친에게도 "다음은 당신 차례다" 라고 위협했다. 따라서 또 4명의 경찰이 쳐들어와 가택수색을 했는데 리제 모친의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경찰은 또 강제로 그의 남편을 협박해 리제의 집을 수색해 대개 7권의 책, 주간, mp3를 강탈해갔다.

리제 여사는 납치돼서 지금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데 두 어린아이는 엄마의 보살핌이 수요된다. 그의 가족들은 또다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